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11.8~11)

1. 일본 수출규제 WTO 2차 양자협약(11.19 예정) 관련

□ [일본 정부 동향]

- 일본 경제산업성은 11월 19일 WTO 협정에 근거, 제네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하여 제2차 양자협약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¹⁾
- 카지야마(梶山)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WTO 협정과 정합적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입장을 주장할 것”이라고 발언함.²⁾
- * 일본 측은 이번 조치를 두고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에 불비(不備)한 점이 있어서 실시한 ‘안전보장상의 필요한 수출관리 운용제도의 재점검’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³⁾

□ [일본 언론 동향]

- 마이니치(毎日) 신문은 한일 양국 주장에 간극이 커서 사태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논평⁴⁾
- NHK는 2차 협의에서도 한일 양국은 쌍방의 입장 및 생각을 재차 설명할 것으로 보이며, 서로 양보할 조짐은 없어서 소위원회로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⁵⁾
- 산케이(産経) 신문은 양자간 협의에서 종료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양국의 대립이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⁶⁾

1) 経済産業省(2019. 11. 8), 「大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WTO協定に基づく二国間協議を実施します」,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press/2019/11/20191108006/20191108006.html> (검색일: 2019. 11. 8).

2) 経済産業省(2019. 11. 8), 「梶山経済産業大臣の閣議後記者会見の概要」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speeches/kaiken/2019/20191108001.html> (검색일: 2019. 11. 8),

3) 「日韓WTO協議 2回目19日開催 輸出管理厳格化」 『産経新聞』 (2019. 11. 9).

4) 「日韓WTO協議: 日韓WTO協議 19日2回目開催」 『毎日新聞』 (2019. 11. 9).

5) 「WTO 日韓の2回目協議 19日スイス開催へ」 『NHK NEWS WEB』 (2019. 11. 8).

6) 각주 3의 산케이 신문.

2. 한국의 부품소재 국산화 관련

□ [일본 언론 동향]⁷⁾

- 닛케이는 한국이 부품·소재 국산화에 착수하고 있지만 ‘탈일본화’의 벽은 높고, 한국 정부가 의도하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논평
 - 먼저, LG 디스플레이의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과 관련해서는 당사가 저순도 불화수소를 일본에서 수입, 한국에서 가공한 것으로서 원재료는 일본제라고 주장
 - * 닛케이는 지금까지 LG 디스플레이가 일본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최종제품을 수입해 왔으나, 물류 효율화를 위해 원재료인 저순도 불화수소를 일본에서 수입, 한국에서 에칭 가스로 가공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변경하는 준비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전부터 진행해 왔다고 주장함.
 - 또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⁸⁾과 관련, 이는 2001년의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과 예산 규모 및 대상 품목에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계획의 연장선이라고 평가
 - 그에 더해 한국 정부가 부품·소재 국산화를 추진할 때마다 이면에 항상 한·일간 긴장 상태가 있었다고 주장
 - * 닛케이는 2009년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 2차 시기에는 이명박 정권의 최우선 과제가 대일무역적자 축소였으며, 3·4차 기본계획 당시에는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지적함.
 - 그러나 기술적으로 고난도의 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일본 의존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
 - 또한 한국 대기업의 본심은 일본의 부품·소재 업체들과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며, 높은 일본 의존도라는 리스크를 인식하면서도, 국내 공급

7) 「半導体製造、脱・日本依存急ぐ—韓国、素材国産化に高い壁、品質や価格、競争力及ばず（真相深層）」 『日本経済新聞』(2019. 11. 8).

8) 관계부처 합동,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2019. 8. 5).

업자들을 육성할 만큼의 여유는 없는 것이 실상이라고 주장

3. 스텔라케미파(불화수소 제조업체)의 영업실적 관련

□ [동향]

- 불화수소 제조업체 스텔라케미파는 2019 회계연도 중간결산(11.8) 결과, 매출액이 전년대비 11.9% 감소(171억엔), 순이익은 57.8% 감소(6억엔)하였다고 발표⁹⁾

- 아사히(朝日) 신문은 스텔라케미파가 불화수소 수출허가를 받지 못하여, 7월 초순부터 9월말까지 불화수소를 한국으로 수출하지 못한 점이 영업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함.

- 스텔라케미파는 고순도 불화수소의 세계시장에서 약 60~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 한편, 스텔라케미파의 수출 담당자는 “한국으로의 수출 재개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11.8 시점에서 수출허가를 받지 못함)

9) 「経済ファイル」ステラケミファ減収減益 『朝日新聞』(2019. 11. 9). 및 「ステラケミファ、純利益58%減、フッ化水素輸出管理で。」 『日本経済新聞』(2019. 11. 9).